

Fixed Income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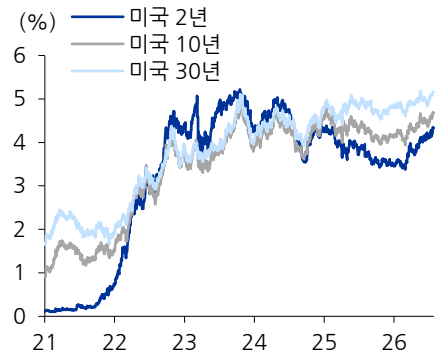
채권 김지나

6148/jnkim0526@eugenefn.com

7월 FOMC 리뷰: 실질금리 상승에 기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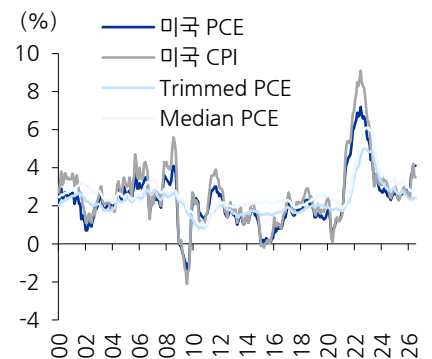
- “ 7월 FOMC,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3.50~3.75%)했으나 3명의 인상 소수의견 포함하며 연준 내 매파적 의견 확대를 확인(해머 클리블랜드 연은, 로건 달라스 연은,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성명서는 6월과 거의 동일했음.
- “ 역시나 별다른 힌트는 없었음. 포워드 가이드런스 폐기에 대해 ‘시장이 이벤트에 훨씬 직접적으로 반응 중’이라고 긍정적인 톤으로 평가. 연말까지는 기자회견을 약속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이후는 기자회견 횟수나 형식에 대한 조정 가능성 열려둬야 함. 시간이 갈수록 통화정책에 대한 가이드언스를 받기 어려워질 예정.
- “ 기자회견에서 주요한 부분은 1) 인플레이션 2) 금리 상승에 대한 평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어찌 보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됨. 느슨한 목표는 없으며, 단 하나의 목표는 2%라고 강조. 6월 근원물가를 두고 한달 수치의 의미는 별로 크지 않으며, 추세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수적인 태도. 인상을 하지 않았지만, 인상에 대한 내부적 논의가 충분했고 향후 물가 대응을 위한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낸 발언들이 주를 이뤘음.
- “ 특징적인 것은 금리 상승에 대한 발언들. 워시 의장은 최근 국채 금리 상승을 주시하고 있으나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언급. 6월과 7월 회의 간 발생한 금리 상승이 금융환경을 스스로 긴축시키고 있다고 평가.
- “ 위 발언들은 마치 포워드 가이드언스 폐기와 같이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는 맥락의 연장선상 같았음. 실제로 미국 실질 기준금리는 6월 CPI 기준 0.25%지만, 국채 10년 금리 기준 실질 금리는 6월 FOMC 당일 0.2869%에서 7월 FOMC 당일 1.1771%로 상승했음(국채 10년 금리 기준). 그러나 워시 의장의 속내는 장기금리 상승을 용인함으로써 금융여건이 일정 부분 알아서 긴축의 자정을 거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임. 워시 체제 출범 이후 연준 내부의 매파적 의견이 강화된 것은 맞지만, 모호성을 통해 매파적 불안이 시장에서 강화됨으로써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연준은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 “ 연내 1회 인상 전망 유지. 구체적인 시기는 9월로 앞당겨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의 인상 사이클이 당겨질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아 보임. 9월 인상 후 실질금리 및 전쟁 등 물가 상황을 지켜보고, 11월 중간선거를 지낸 후 다음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 미국 경기 역시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양대책무 중 하나인 고용도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는 지속될 전망.

전쟁과 인플레 및 워시 체제, 금리 상승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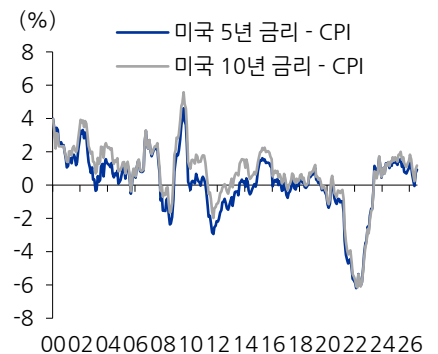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여러 물가지표, 여전히 목표치 큰 폭 상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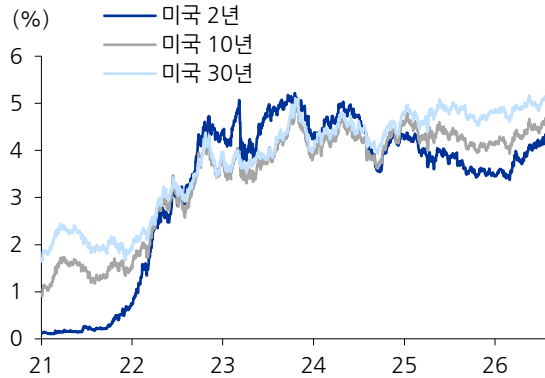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실질금리의 빠른 상승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전쟁과 워시 체제, 금리 상승 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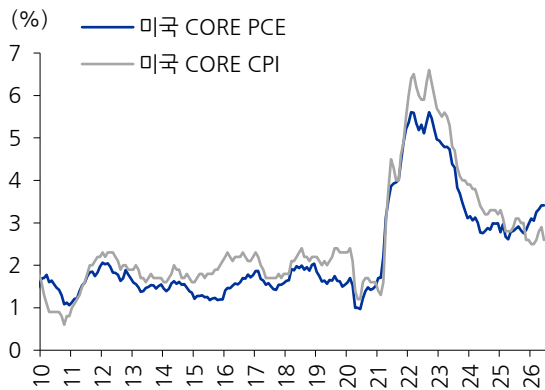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장기금리, 인플레이 우려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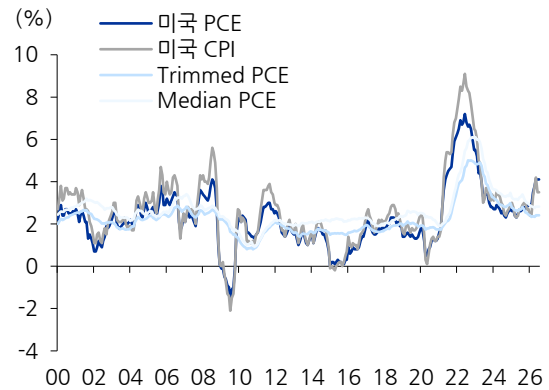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6월 근원물가의 영향, 크지 않다고 평가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여러 물가지표들, 여전히 목표치 상당폭 상회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미국 실질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미국 실질금리의 빠른 상승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